

# 축 사



김 중 필 (민주자유당 대표위원)

친애하는 대한양돈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먼저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나라 양돈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대한양돈협회 양돈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들이닥친 불황 등 수많은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도전과 용기로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품질 좋고 값싼 돼지고기를 제공하며 국민식생활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2,000여 양돈인 대표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양돈인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동안 양돈업을 비롯한 우리의 축산업은 국가주요산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수출산업으로 까지 성장하는 등 이 나라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농가의 뼈 놓을 수 없는 소득원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지금 개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경없는 지구촌에서 문자 그대로 적자생존의 경제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전환기적 매우 중요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력이 빈약한 축산업 등 우리의 농업이 이같은 치열한 경제전쟁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돈인 대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를 믿고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어려움을 꺾듯이 극복해 갑시다. 자신과 용기와 희망을 갖고 개혁과 전진의 행보를 계속합시다. 우리 당은 수입개방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등으로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농어민 모두가 받고 있는 패배감, 불안감 등 크나 큰 충격과 좌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 당이 이같은 여러분의 고통을 전부 헤아린다고 말할 수야 있겠습니까 만은 그러나 우리 스스로 여러분이 되어, 여러분의 입장에서 아픔을 같이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누누이 강조한대로 우리의 농업을 경쟁력있는 전략산업으로 반드시 만들어갈 것이며 우리의 양돈업을 세계와 맞설 수 있는 선진축산으로 기어이 키워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은 지금 축산진흥 개발계획을 비롯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업 구조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저는 양돈인을 비롯한 우리 농어민의 큰 관심사이자 우리 당의 대통령 선거 공약사

항이기도 한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문제를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과세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전액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전입되어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세금을 면제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한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뿐 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우선 금년 정기국회에서 축산기자재에 대한 비과세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료와 동물약품에 대하여는 모든 당력을 기울여 면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돈인을 비롯한 축산인들의 또 하나의 큰 애로사항은 축산공해방지시설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에 금년 335억원 규모보다 226%나 대폭 늘어난 1,094억원을 책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농어민의 흥망에 부응했으면 하는 우리의 소망은 너무나 간절합니다만 국민경제적 차원의 제약과 한계에 항상 부딪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이상 농어민의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총체적 국가발전과 조화와 균형을 이룩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린 농어민이 겪은 어려움에 다소라도 보답해 드릴 수 있는 배려와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양돈업은 우리의 축산업 중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서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이웃 일본이 우리 돈육수출의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확신과 희망을 갖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수출양돈을 위해 노력합시다.

지금 세계무역기구인 WTO 비준문제가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체결에 따른 WTO 출범은 이제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엄연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WTO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이후 어떻게 세계경쟁에서 이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정성을 다하며 총체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국제경제의 내일과 직결되어 있는 WTO 문제를 당리당략적 도구로 삼아 이를 무작정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시대의 역류가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한숨만 쉬고 있을 그러한 한가한 상황도 시점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장이 열린 만큼 상대의 시장도 열리고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우루과이 라운드를 이기는 길은 필연코 열릴 것입니다.

친애하는 양돈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대회가 개방화와 국제화 시대에 우리 양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양돈인 여러분의 각오와 결의를 굳게 다지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하여 이 나라 축산진흥의 굳건한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은 여러분의 확신과 용기, 자조와 협동을 온 힘을 다하여 격려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